

9일 Market Index	
코스피	코스닥
2610.81 (-33.70)	860.84 (-23.38)
금리 (연이자율)	환율 (원/달러)
3.062 (-0.084)	1274.00 (+1.30)

창간 20년

metro® 경제

[경제종합] 산업계 물류난·금리인상 등 경영 먹구름 03

구독료: 월 15,000원 / 1부 800원 등록번호 서울 가50111 독자센터 (02)721-9841 매일 아침, 나를 키우는 메트로 2022년 5월 10일 화요일

담장 없는 용산 집무실서 '국민 친화 대통령' 첫 발

윤석열 20대 대통령 오늘 취임

尹대통령, 0시부터 용산서 업무 새 집무실, 美 백악관 벤치마킹 낮은 펜스 설치, 공원 조성 등 국민 친화적인 형태로 탈바꿈 취임식 직후 청와대 전면 개방

윤석열 대통령 취임과 함께 서울 용산의 새 집무실에 관심이 쏠린다. 국방부 청사를 활용한 새로운 집무실은 '공간이 의식을 지배한다'며 윤석열 대통령이 청와대에서 떠나기로 한 이유가 담긴 상징성 있는 장소이기 때문이다. 대선 기간 윤 대통령이 주장해온 '제왕적 대통령제 청산'도 가능할지 관심이 쏠린다.

윤 대통령은 취임하는 10일 0시부터 청와대에 가지 않고, 새 집무실에서 업무를 본다. 청와대는 같은 날 서울 여의도 국회의사당에서 열리는 제20대 대통령 취임식 직후 국민 누구나 방문할 수 있도록 전면 개방한다.

용산에 마련한 새로운 대통령 집무실은 국민 누구나 가까이 다가갈 수 있도록 개방적인 형태로 만들어졌다. 과거 미군기지였던 집무실 주변 공터는 시민 공원으로 바꾼다. 집무실 주변에 있는 담장도 허물고, 낮은 펜스만 설치한다. 국민 누구나 가까운 곳에서 대통령 집무실을 바라볼 수 있도록 할 것이라는 구상이다.

이는 미국 백악관 집무실 모습과 닮았다. 백악관은 대통령이 일하는 공간을 누구나 가까운 곳에서 지켜볼 수 있게 돼 있다. 담장 없이 펜스만 있어서, 집무실에 오가는 모습이 볼 수 있다. 이에 새로운 대통령 집무실 앞에도 잔디가 깔린 거대한 공원이 조성된다.

공원 조성을 위해서는 미군기지 반환이 필수인데, 올해 안에 전체 반환 예



제20대 대통령 취임식을 하루 앞둔 9일 오전 서울 용산구 대통령실 청사에 새 정부 슬로건 '다시, 대한민국! 새로 국민 나라' 현수막이 게시돼 있다. /뉴스시스



문재인 대통령이 9일 오전 청와대 본관에서 퇴임 연설을 마친 뒤 본관을 나서고 있다. <관련기사 2면>

정 부지(203만㎡) 가운데 50만㎡까지 돌려받기 위해 노력할 것이라는 게 내부 구상이다. 현재 반환된 미군기지 규모는 전체 예정 부지의 약 10% 수준인 21만8000㎡에 불과하다.

부지를 반환받은 뒤에는 토양 오염 정화 작업과 함께 즉시 공원 조성 가능한 곳은 착공에 들어갈 방침이다. 대통령 집무실 주변에 만들어질 공원에는 2023년 정전 및 한미동맹 70주년 기념 주한미군 순직자 94명을 기리는 추모비도 세워질 예정이다.

윤 대통령이 일할 집무실 내부 구성도 미국 백악관 '웨스트 윙(West-wing)'의 수평적 구조와 유사하게 만들었다. 집무실 바탕인 국방부 청사는 지상 10층으로 지어진 건물로, 규모는 1만 5000㎡에 이른다. 이곳에는 대통령 집무실과 참모진 사무실, 각종 회의 및 연회가 가능한 공간, 민관합동위원회, 기자실, 국가위기관리센터 등이 들어

왔다. 대통령은 2층 본 집무실과 5층 보조 집무실을 각각 번갈아 가며 사용한다. 취임한 직후에는 2층 본 집무실 공사가 마치지 않아, 당분간 5층을 이용한다. 2층 집무실 옆에는 대통령 비서실장 사무실과 경호처가 쓰는 공간, 국무회의나 수석·보좌관회의처럼 회의가 열릴 공간도 들어선다.

연회 등이 열릴 수 있는 소규모 영빈관도 2층 집무실과 같은 층에 들어선다. 5층 집무실 옆에도 소규모 인원과 회담할 수 있는 접견실이 들어선다.

윤 대통령이 과거 "언제든 기자들과 만나 국민이 궁금해하는 사안 등에 대해 소통할 것"이라고 밝힌 만큼, 1층에는 기자실과 브리핑룸이 들어선다. 기존 청와대는 대통령 집무실인 본관 및 비서동(여민관)과 거리가 떨어진 곳에 기자실인 춘추관이 있었다. <2면에 계속>

/최영훈 기자 choiyoungkr@metroseoul.co.kr

물가 상승률 5% 근접 기대인플레이션도 흔들

'한은, 5번째 금리인상 단행' 무계
국내 경제가 흔들리고 있다. 소비자 물가 상승률이 5%에 근접한 가운데, 기대인플레이션(미래의 물가상승률)마저 흔들거리면서다. 여기에 한국은행이 기준금리 인상에 속도를 낼 수 있다는 전망까지 나오며 긴장감이 고조되고 있다.

9일 통계청에 따르면 지난달 소비자 물가지수는 106.85(2020=100)로 전년

동기보다 4.8% 오른 것으로 나타났다. 이는 글로벌 금융위기 시절인 2008년 10월 이후 13년 만에 최대치다.

소비자물가 상승률은 지난해 10월 3.2%를 기록하며 9년 8개월 만에 3%대로 올라섰다. 이후 3%의 상승률을 지속하다 지난 3월엔 4.1%까지 치솟았다. 자칫하면 물가 상승률이 5%대까지 오를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는 이유다. <5면에 계속>

/백지연 기자 wldus0248@

역변의 20년, 기업에서 미래를 찾다
⑥ 롯데그룹 <4면>

제20대 윤석열 대통령의 취임을 축하합니다

오늘보다 내일이 나은
같이 나누고 함께 성장하는
더 좋은 대한민국을 꿈꿉니다

새로운 대통령과
국민이 하나가 되어 만들어갈
새로운 대한민국을 응원합니다

삼성이 함께 하겠습니다